

아리셀 중대재해 첫 번째 '시민추모제' 열려...비통한 표정의 유족들, "행사 방해한 화성시 규탄"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01 23:17

"화성시 공무원, 유족에 전화해 '추모제 취소' 거짓 정보" 대책위,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 '추모의 벽' 설치 운영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를 방해하기 위한 화성시의 방해공작이 있었다.

추모제는 유가족과 대책위에 이름을 올린 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들, 또 추모를 위해 화성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참석 속에서 열렸다. 대책위 피해자권리보장팀에서 활동하는 한미경 님의 진행 아래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해 머리를 숙이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예를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추모제가 시작됐다.

이날 유족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추모제 앞 자리에 앉았다. 유족들은 각자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손에 들고,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흐느끼거나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추모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참사 희생자 김익선 님이 발언했다. 2년 전 '화일약품 중대재해 참사'에서 아들을 잃은 김익선 님은 "9월이면 화일약품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화성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약속한 추모비 건립 약속을 이행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발언에 나선 대책위 송성영 공동대표는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행보가 더디다. 이 참사의 주범에 다름 없는 정부는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실은 헬조선이다. 진실규명을 넘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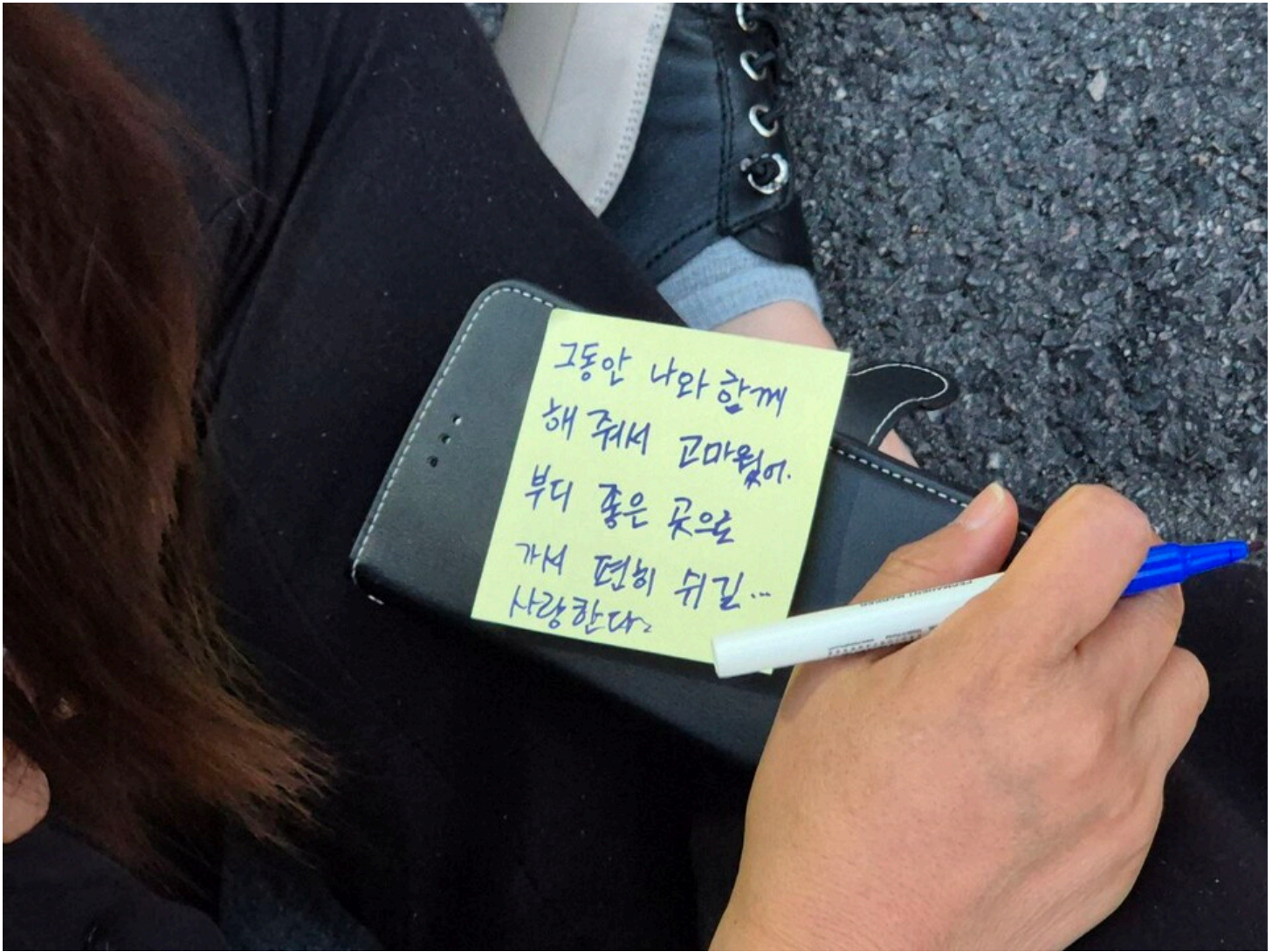
추모제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 2학년 9반 윤희 어머니 김순길 씨는 “추모제를 방해하고 나선 화성시를 규탄한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오늘 다시 벽에 부딪힌 느낌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예견된 참사에 희생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하겠다”고 한 뒤 “책임당국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유가족 협회회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유가족 협의회 김태운 공동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유가족 협의회는 매일 아침 ‘어제도 잘 버티셨습니까. 오늘도 잘 버팁시다’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조사과정이 공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사가 벌인 일련의 행동들은 유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더 멍치게 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히며, 오늘 벌어진 화성시의 추모제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에 참가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간 화성시가 유가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기에 오늘의 행위는 충격적이다. 화성시는 추모제 방해가 아니라 화성시장이 함께 추모제에 나와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분노했다.

시민추모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내용,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염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건설 등 각자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적고 오늘 설치된 '추모의 벽'에 게시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민추모제'를 마무리했다. 시민추모제는 매일 오후 7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추모제 방해공작 화성시 규탄

"유족에 전화해 '문화제 취소' 거짓정보"

시민추모제에서 유족과 대책위의 화성시에 분노한 이유는 화성시가 추모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대책위가 배포한 소식에 따르면, 첫 번째 시민추모제가 시작되는 오늘 화성시의 추모제 방해 행위가 자행됐다. 화성시 공무원들 비롯해 유가족과 일대일 매칭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행사가 취소됐다'며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심지어 화성시의 모 공무원은 '추모제를 강행할 시 관련한 법(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망발을 쏟아 내기도 하고 실제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의 추모 행렬과 추모제를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의 목소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오늘 화성시의 행태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안부 장관과 관련 부처에서 연일 쏟아내는 약속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규탄했다.

더해 “화성시는 지난 화일약품 참사를 겪고도 배운 것이 없다. 화성시가 할 일은 추모제 방해가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이 온전히 모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 공무원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화성시 공무원은 취재를 거부한다며 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가 참사 발생 후 요구안과 사업계획 등을 정리하고 첫 번째 추모행동으로 1일 오후 7시 화성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대책위,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 ‘추모의 벽’ 설치

한편, 대책위는 오늘 오전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입구에 ‘추모의 벽’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노동자,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참사 이후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곳 화성시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와 다짐을 방명록에 남기고 있지만 정착 유가족 등 피해자들은 이를 전달받거나 확인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책위는 ‘추모의벽’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직접 작성, 게시하고 이를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설치를 마친 ‘추모의 벽’에는 위로와, 공감, 다짐의 메시지들로 채워지고 있다.

오는 2일 11시 화성 합동분향소 앞에서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자의 명품
입니다
개발자에게
마정하-

아리랑, 풍채미
찾아 개발자의
명품은 빛나
무엇이든
진정이다.

이제는 우리들
같은 개발자
사도 고도의 전문 분야
입니다. 안
정확한
개발은
안 됩니다.

활력만 있을 경우
정신과 체력 개발
이 없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은 건강을
정신을 구명하여
다들 그 최면에
어떤 큰 의미라고
함께 했습니다.

추진 다 나
본는 (S/A)

노동자 인
정하는
개발자

상가 고인의
정신을 받는다.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의

아리랑 풍채미
사상적 정수를 빛나
최고의 정신적
사상적 대역아연하

고인 개발자
대역아연하
정신과 영

상가 고인의
명품을 받는다
정신과 영
안정 정신의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누구도
안타까운
죽지 않기를.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최성자의 명품과
유가품의 위상을
유지 기대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품을 받는다

최성자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이 납니다.
대서는 이런일이 없기를!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아리랑 감사로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정신과 영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